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3, Vol. 35, No. 2, 693-725
http://dx.doi.org/10.23844/kjcp.2023.05.35.2.693

OPEN ACCESS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매개효과*

류 단 비
한양대학교 / 학생

하 정 희†
한양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자녀가 없는 기혼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 척도, 부부친밀감 척도, 문화적 자기관 척도 설문지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는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공생은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둘째,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는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모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고 공생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에만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셋째, 독립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직접 영향을 미침과 함께 독립적 자기관을 거쳐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공생은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와 공생은 부부친밀감과 문화적 자기관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독립적,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고루 발달시키고 부부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적인 개별화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신혼기 부부, 분리-개별화, 문화적 자기관, 부부친밀감

---

* 본 연구는 류단비(2020)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510호
Tel : 02-2220-2613, E-mail : hajung366@hanyang.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riandis(1989)는 문화권을 크게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구성의 기본단위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기에, 개인의 가치평가 기준도 개인의 안녕이나 행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구성의 기본단위를 가족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 평가 기준도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타인과의 관계에 자신이 얼마나 잘 융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였다(김보경, 2003).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안녕감에 가족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족은 두 사람이 만나 부부라는 하위체계를 이루면서 시작된다.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기본이 되며,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울수록, 가족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된다(남순현, 한성열, 2003).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글로벌 시대에 도래하여 서구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남녀가치관에 변화가 생겨났고, 부부사이의 친밀감과 만족감이 더 중요시되는 추세로 변화하게 되었다(권정혜, 채규만, 2000; 박남숙, 연문희, 2002).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아이를 가지고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기성세대와 다르게 출산결정 및 결혼유지를 온전히 부부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2022)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전체 이혼건수 가운데 혼인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2). 이는 결혼 초기인 신혼기간에 부부가 결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면 이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처럼 현대의 부부관계는 기능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은 제 2의 인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사회를 유지시키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결혼초기는 서로 다른 가족문화와 환경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왔던 두 성인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조율이 필요한 시기이다. 결혼초기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는 과도기이며(이기숙, 1998) 부부간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기(Duvall, 1977)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결혼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혼기는 전체 가족주기의 행복과 질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도 가족관계와 삶의 질을 건강하게 수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임유진 등, 2008).

많은 부부 심리연구 권위자들은 부부관계 안에서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에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Gottman & Levenson, 2000)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도 기존의 역할, 권력 위주의 개념보다는 만족감, 애정, 적응, 조화 같은 개념으로 자주 설명되고 있다(남순현, 한성열,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간의 심도 있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남순현, 한성열, 2003). 부부친밀감은 부부의 정서적, 성적인 밀접함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의사소통과 부부 구성원 가치관의 일치하는 정도, 부부간의 성적만족 및 신뢰와 같은 인지적 요인까지 포함하며 관계를 긴밀하게 공유하는 정

도를 설명한다(Heller & Wood, 1998; Moss & Schwebel, 1993; Waring, 1984).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란 두 남녀가 부부라는 관계로 묶이게 되면 어느 관계보다 더 많은 공간, 시간, 정서 등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친밀한 정도가 결혼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하오령, 권정혜, 2006).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있다. 원가족내에서 사용되던 상호작용 방식이나 원가족 문화는 결혼을 한 뒤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 개개인은 결혼 후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욕구, 가치, 태도, 신념,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게 된다. 또한 미혼의 시기부터 이어져왔던 해결되지 못한 원가족과의 갈등은, 새로운 가족 형태인 부부관계로 그대로 전이되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이남옥 등,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내 또한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ws & Mallinckrodt, 1998). 윤희정(2004)은 분리-개별화가 어려운 집단일수록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나 부부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의 주제를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원가족 안에서 발생되었던 문제를 현재의 부부문제에 투영함으로써 현재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분화정도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부부치료의 목표는 부부구성원 개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높은 분화수준을 갖도록 돕는 것이 될 수 있다(장성숙, 2006). 이와 비슷하게 Dicks(1967: 박경순, 2013에서 재인용)및 Scharff와 Scharff(1991: 박경순, 2013에서 재인용)는 Klein의 투사적-내사적 동일시 이론과 Fairbairn의 내부정신구조이론을 부부치료에 접목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대상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된 부분은 억압되어 있다가 훗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의 충족되지 않았던 좌절된 대상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동일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부부관계 안에서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박경순, 2013). 특히 신혼기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성인이 만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시기로 부부간에 수많은 대화, 조율 및 협상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재확립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Berger & Kellner, 1994).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에 성공하지 못한 자녀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녀의 부부관계에서도 부적응적 행동을 만들어 내게 된다(Hoffman & Weiss, 1987).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자녀는 스트레스 발생 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 내적 통제를 잘하게 되며(남순현, 한성열, 2003) 자녀의 결혼 생활은 원가족 안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유형이 지대한 효과를 미친다(유은희, 박성연, 1989; 전춘애, 1994). 또한 자아를 재조직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기존재를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따라 성인기 성격이 건강한지 병리적인지 결정하는 요인이 되거나, 성인기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김지혜, 2015), 원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

는 이후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조아현, 2022). 이처럼 원가족이 성인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의 성공여부가 자녀의 결혼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Mahler(1967)는 발달 과정에서 유아의 욕구가 어머니에 의해 알아차려지고 충분히 수용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부화(Hatching)하게 되고 적절한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생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훗날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도 적절한 분리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지나치게 거부적이거나 밀착되면서 부부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리-개별화가 어려운 집단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의사소통에서도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고, 원가족 문제, 전반적인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의 불만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양육갈등을 겪게 된다(이명옥, 하정희, 2006). 김용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분리-개별화는 기혼 여성의 행복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친정부모와 분리-개별화가 잘 되었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불안이 낮아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기혼여성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유은희, 박성연(1989)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이 아버지와 분리-개별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도 하였는데 기혼여성의 행복감은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과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이성부모에게서 경험된 관계의 내적 표상이 훗날 배우자와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명옥, 하정희(2006)의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리-개별화가 잘 된 부부일수록 부부간 의견일치도가 높았고 부부응집력이 커져서 부부관계를 만족스럽게 지각하고 부부애정 표현력 또한 커진다고 하였다.

분리-개별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며,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에, 두 번째 단계는 청년기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Mahler et al., 1975). 분리의 과정은 부모와의 융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칭하며 부모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는 과정이고 개별화의 과정은 자신의 개별적 특성을 성취하여 자신에 대한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들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성취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Mahler et al., 1975), 분리시키고 개별화해나가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하게 된다(Blos, 1979). Mahler 등(1985)은 '분리'와 '개별화'는 이질적이지만 서로 보완하는 과정을 가지며 이 두 과정들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각기 다른 과정의 성취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분리-개별화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고립과 다시 어머니와의 공생적 융합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는 성인 발달의 중대한 결정요인이 된다(Greenberg & Mitchell, 1983). 이처럼 분리-개별화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하위개념이 존재하며 분리-개별화를 측정하는 척도에서도 건강한 분리에 관련된 개별화 및 가독립 요인과 대상에게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리불안 및 대상과 공생관계

로 남아있는 싶은 욕구와 관련된 공생관계 및 일차적인 불안 요인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리-개별화의 하위요인인 개별화 및 가독립 요인과 공생관계 및 일차적인 불안 요인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개별화와 자기위로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김유리(2016)의 연구에서는 공생관계 하위변인은 개별화 하위변인과 다르게 신체적 위로하기와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정윤희(2012)의 연구에서도 분리-개별화의 하위요인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 양육태도 중 애정과 상관을 가진 것은 개별화였으며, 거부,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상관을 보인 것은 공생관계였다. 또한 또래 애착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분리-개별화의 하위요인이 각기 상반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개별화와는 정적 상관을, 공생관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박규상과 조성호(2009)의 연구에서는 가독립 개별화 수준은 자기 비난적 우울에, 공생 일차적 불안은 의존적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리-개별화와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하위요인들 간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하위요인 별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 및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혼기 부부의 부부친밀감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분리-개별화의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상관을 갖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고유성과 '나와 남'이 연결된다는 경험을 동시에 하며, 이러한 '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에 대한 이해는 정서적 안녕감과 둘러싸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 부부친밀감은 부부사이의 의사소통과 가치관의 일치성 및 공유, 서로에 대한 이해, 신뢰, 성적 만족 등을 부부구성원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개인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나'에 대한 이해, 즉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들의 '자기관'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견해보고자 하였다.

학자들에 따르면 자기(self)는 매우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조직하고 지시한다. 자기는 가까운 타인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성되며(Damon & Hart, 1988; Mead, 1934; Rosenberg, 1981) 의도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개인이 사회적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Banaji & Prentice, 1994; Baumeister, 2010; Markus & Wurf, 1987).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은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정체성을 창조해야 하는지를 지시받게 되며 사회적 환경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구성한다. 즉 자기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고 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본질에 대한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달라서 문화마다 자기의 매우 다른 모델들이 형성되게 된다(Cross & Madson, 1997).

개인의 사고 성향이나 행동에 대한 동기,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고 해석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되어진다(Markus & Kitayama, 1991). '자기' 또는 '자아'로 해석되는 '셀프(self)'라는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되어지고 고려되어지는 개인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현경자, 2004), 사회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토대로 구성되는 것이 자기라고 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설명하는 자기관(Self-construal) 또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고 형성됨을 예상할 수 있다. 자기관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 중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지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주는데(Markus & Wulf, 1987), Markus와 Kitayama (1991)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은 인지과정, 행동동기, 감정경험 등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자기관(Self-construal)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구성개념, 문화적 자기관, 자기해석, 자아해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달되는 속성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기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이해를 설명하는 문화적 자기관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화적 자기관은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를 개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의미하며 자신을 타인과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지,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 보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문화적 자기관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의 의미체계와 생활방식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사회문화적 및 역사적으로 조성된 환경의 산물로 간주된다(Fiske et al., 1998). Markus와 Kitayama(1991)는 사회구성원이 지닌 동기, 정서, 인지 등을 자기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틀을 제시하였고, 문화권에 따라 자기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문화권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개인은 자기를 인식할 때 독립성이 많이 발견되며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개인은 자기를 인식할 때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을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로 보기에 이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을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보기에 이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보경, 2003).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단위를 사회관계 및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중심적이고 상황의존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하게 되고 이는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하며,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충족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라고 보기 때문에 개체중심적이고 상황유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 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게 되고 이는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갖게 한다(Markus & Kitayama, 1991).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인지하며 타인과 경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기

고유의 내적 특성과 내적 사고, 행동, 감정 등에 의해 결정하는 성향을 보인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두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둘러 싼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여 결정하고 외적 특성, 즉 사회 내에서의 위치, 지위, 역할, 소속집단, 사회적 관계, 타인의 평가 등에 의해 자신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성향을 보인다(조긍호, 1996).

인간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기관은 성인남녀의 행동동기, 정서적 경험, 사고성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Markus & Kitayama, 1991, 1994), 생활사건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적 대처와 반응에 영향을 미쳐(Cross, 1995) 생활만족, 결혼만족 등의 주관적 안녕감을 좌우한다(현경자, 2004; Hyun, 2000; Kwan et al., 1997). Helgeson(1994)은 개인의 독립성은 행위주체성으로 반영되고 관계지향성은 친교성으로 반영되며 이 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 극단적 행위주체성, 극단적 친교성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손상한다고 하였다. 문화적 자기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개인 안에 함께 공존됨이 밝혀졌으며, 이 두 자기관의 혼합 유형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안녕감이 달라진다고 하였다(Hyun, 1995; Misra & Giri, 1995; Singelis, 1994).

문화적 자기관의 두 가지 자기개념은 특정 하나만 발달한 경우보다는 두 가지 자기개념을 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적응에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밝혀낸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며, 두 가지 자기관이 골고루 발달된 개인은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얼마든지 관계 지향적이나 개별 지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직(1999)의 선행연구에서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자기 존중감과 생활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밝혀냈으며, Ting-Toomey 등(2001)의 연구에서는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효과적인 갈등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Hyun(1995), Misra와 Giri(1995), Singelis(1994)등은 서구와 동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한 자기관에 관한 연구들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개인 안에 함께 공존됨을 밝혀냈는데, 이 두 자기관이 어떤 식으로 통합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안녕감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개인의 안녕감과 사회기능 유지에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본질적 요소로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 두 성향이 개인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기혼남녀의 자기관이 개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가 기혼남녀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어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느끼는 결혼 만족도나 결혼 안정감, 부부친밀감도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문화적 자기관이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고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이 속하는 가장 기본 사회단체인 가족, 특히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부모와의 관계 또한 개인의 문화적 자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문화적 자기관의 유형으로 살펴보았을 때 독립성과 상호의존

성 또한 골고루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Bowen(1978)에 따르면 분화가 잘 된 개인일수록 자기 정체감이 명확히 형성되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개인의 실현 욕구와 심리적 성장을 충족하는 기회로 삼게 되며,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동시에 부모와의 친밀감을 경험하여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김용희(2010)는 기혼여성의 분리-개별화와 자율성, 친밀감이 행복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행복감이 높고 불안감이 적을 때는 원가족과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이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여 자신을 잘 분리시킬 수 있을 때라고 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은 원가족과 분리가 잘 되면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원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원가족으로부터의 건강한 독립은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문화적 자기관의 개념에 대입해보면 개인이 분리-개별화를 잘 해나갈수록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골고루 발달한 사람은 타인의 잣대나 기준 또는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한 자기 신념과 자기상이 있으며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동시에 중요한 타인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관련성 또한 중요시하여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사고와 감정, 타인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뤄내며 원만한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이 가능한 개인일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자기관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가족의 특성 및 응집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 문화나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또 자녀의 문화적 자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분리-개별화는 일관적으로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일수록 적응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나 문화적 자기관의 경우, 그 특성은 문화별로 같은 변인이라도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재 신혼기에 있는 우리나라 부부들은 분리-개별화가 잘 될수록, 문화적 자기관 중에 어떠한 자기관과 관련성이 큰지, 특히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 및 공생이 두 가지 자기관 유형 중에 어떠한 자기관과 더 관련성이 큰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은 분리-개별화나 가족분화가 문화적 자기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리-개별화와 문화적 자기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가 없다. 기존에 연구된 바는 없지만, 문화적 자기관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 각각의 특성은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이 지니는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리-개별화에 성공한 개인은 문화적 자기관의 독립적-상호의존적 특성이 골고루 높은 고독립-고상호의존의 유형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개인은 자기관 유형이 골고루 발달했기 보다는 특정 자기관만 높게 발달했거나 둘 다 발달하지 못한 미분화유형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문화적 자기관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문화적 자기관 형성 과

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자기관과 개인의 적응, 부부관계와의 관련성 또한 입증된바있다. 독립적 자기관을 구성하는 주요인은 자율성이며, 자율성은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양성하기 때문에(Deci & Ryan, 1985: 현경자, 2004에서 재인용)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느낌, 생각, 욕구 등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Markus & Kitayama, 1991) 스트레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노승훈, 이기학, 2020). 오경희(1997)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개인은 자기존중감이 높아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결혼만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현경자, 2004).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촉진하고, 타인과 관계유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게 되며 관계를 통해 자기정체감을 형성한다(Markus & Kitayama, 1991). 또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자신이 더 희생하며 그러한 희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느낀다(어유경, 박수현, 2018). 이런 관계적 자기정체감이 높은 기혼자는 타인과 맺는 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으며(Acitelli et al., 1999), 자존감이나 자기강화는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사고와 감정, 가까운 타인과의 조화, 타인을 돕는 행동이나 기술, 타인의 행복감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다(Miller, 2012). 이처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타인에 대한 지지와 민감성은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상호이해와 유대감을 도모하여 결혼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이미숙, 1997).

기혼자의 자기관은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거나 독립성은 높고 상호의존성이 낮거나 상호의존성은 높고 독립성이 낮거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독립적 자기관은 개인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자기존중감을 양성하여 기혼자가 결혼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주어 안녕감을 높일 수 있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동기를 양성하고 그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기술을 발달시켜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하여 결혼만족을 높이게 된다. 또 두 가지 자기관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합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각각의 자기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자기개념의 명료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자기관 연구에서 자기개념의 복합성이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하고(Linville, 1987), 자기개념의 명료성은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에 기여하는 것으로(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나타남에 따라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개인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예상해볼 수 있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높은 유형이 다른 어떤 자기관 통합유형보다 높은 결혼만족을 보이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이런 유형을 가진 개인은 부부친밀감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게 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 두 가지 자기관이 모두 낮은 유형은 각각의 자기관이 가진 긍정적 기능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개념의 명확성과 복합성이 주는 이점 또한 결여되어 있어 두 자

기관이 모두 높은 유형보다 부부친밀감이 낮은 수준으로 지각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결혼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분화, 원가족 분화, 자기개발, 원가족 건강성,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등 다양한 변인들로 진행되었다. 특히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 성공여부와 결혼만족도 또는 부부친밀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 성공여부가 결혼만족도 또는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으나,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 수준에 따라 어떠한 문화적 자기관 특성이 형성되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리-개별화의 성공여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원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갈등으로 상담서비스를 원하는 부부들의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 획득을 상담을 통해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신혼기 부부들에게 임상적인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는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간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리-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통로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획득이 어려운 분리-개별화 외에 획득이 좀 더 용이한 자기관의 특성을 찾음으로서 분리-개별화 실패로 부부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기 부부들의 부부친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 수준이 결혼 만족감이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변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김용희(2010)의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친밀감이 상호작용하여 기혼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분리-개별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밀감이 중재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덜 이루어진 기혼여성이라도 친밀감의 수준이 높게 되면 행복감을 포함하는 여러 긍정 정서에 주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친밀감은 문화적 자기관에서 바라본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은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박경순(2013)의 연구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으면 결혼 생활에서 우울감을 유발하게 되며,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 내적인 요인에 의해 우울이 야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져 우울감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대상관계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존감 등이 낮으며 자아기능이 취약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외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독립적 자기관 특성이 낮고 상호의존적 자기관만의 특성을 높게 가진 개인의 경우,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자기가치나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대상관계 수준이 낮고 극단적으로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개인은 외부환경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우울감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부부친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현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꼽았다.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독립적

자기관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지양하고 정서억제를 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과 상반되는 것이다. 독립적 자기관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촉진시켜서 결혼만족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부부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개별화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의 근원은 부부간의 정서가 아닌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생활에서 원가족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배우자에게 투사하게 되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던 변인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적 자기관의 독립적,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들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기관'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기관이 매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화적 자기관의 영향이 그 연구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왔는데, 문화적 자기관이 원가족과의 분리-개별화가 신혼기 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검증할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 문화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 관하여 그림 1,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개별화, 공생), 문화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신혼기 부부의 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독립적 자기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셋째, 신혼기 부부의 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넷째, 신혼기 부부의 공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독립적 자기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다섯 째, 신혼기 부부의 공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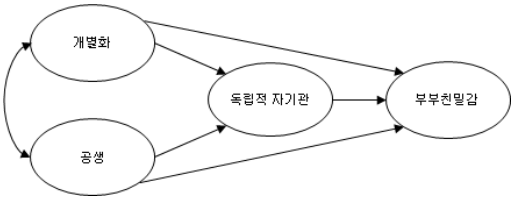

그림 1. 분리-개별화, 독립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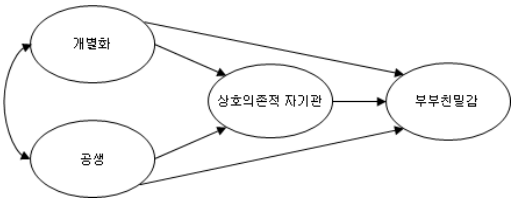

그림 2. 분리-개별화, 상호의존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연구 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자녀

가 없는 기혼남녀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은 온라인용 구글 설문지와 오프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지 381부와 오프라인 설문지 23부로 총 404부였으며, 응답을 누락했거나 응답에 불성실한 응답자 34부를 제외한 37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 101명(27.3%), 여 269명(72.7%)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은 20대 60명(16.2%), 30대 292명(78.9%), 40대 18명(4.9%)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7명(1.9%), 전문대졸업 35명(9.5%), 대졸 195명(52.7%), 대학원이상 133명(35.9%)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1년 미만 106명(28.6%), 1년 이상 ~ 2년 미만 96명(25.9%), 2년 이상 ~ 3년 미만 70명(18.9%), 3년 이상 ~ 4년 미만 24명(6.5%), 4년 이상 ~ 5년 미만 74명(20.0%)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만원미만 8명 (2.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99명(26.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40명(37.8%), 600만원 이상 122명(33.0%), 무응답 1명(.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Scale: SIS)

대상관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리-개별화 척도(SI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evine 등(1986)이 제작한 것을 장근영과 윤진(1992), 김인경(1993)등이 번역하였고 이를 박경순(1998)이 성인용으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제 1요인은 '개별화 및 가독립(Individuation - Pseudo independent: IND)'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이 요인은 비교적 건강한 분리에 관한 내용들과 의존을 부정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 '나는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비교적 남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편이다'). 제 2의 요인은 '공생관계 및 일차적인 불안(Symbiosis-Primary Anxiety; SYM)'으로 명명하였고 이 요인은 대상에게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Persecutory Anxiety)과 공생관계(Symbiosis)로 남아있고 싶은 욕구와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 '주위사람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다', '혼자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겁이난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전체 문항을 역채점 하였다. 즉, 개별화 및 가독립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별화가 잘 되었음을 의미하며, 공생관계 및 1차적 불안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생관계의 욕구가 낮고 분리불안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8, 개별화 .88, 공생 .78로 나타났다.

부부친밀감 척도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1995, 1998)의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chaefer와 Olson(1981)의 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s(PAIR) 척도, Hetherington과 Soeken(1990)의 Intimate Relationship Scale(IRS), Stanley와 Markman(1992)의 Commitment Inventory(CI), 그리고 Stevens와 L'abate(1989)의 Sharing Of Hurts(SOH)를 참고하여 이경희(1995, 1998)가 구성한 것이다. 이 척

도는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방에 관해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밀접함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배우자에게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밀접함의 정도, 또한 상대방에게 배우자로서 느끼는 적합함과 일치감, 그리고 상호보완성의 정도로 측정한다. 성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개방적으로 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성적 욕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어지기 위해 두 사람이 기꺼이 노력하는 정도와 성적 욕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본 척도들의 문항들은 부부친밀감에 대해 응답자의 일치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이 각각 5점에서 25점이며,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친밀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전체 문항에 대해 .86이었으며, 인지적 친밀감은 .73, 정서적 친밀감은 .73, 성적 친밀감은 .87이었다.

문화적 자기관 척도(Self-Construal Scale: SCS)

연구 참가자의 문화적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관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를 한정연(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 소척도와 타인과 자신의 관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 소척도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고 각 소척도는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 자기관 소척도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내 개인적인 정체감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다양한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특한 내 모습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이, 상호의존적 자기관 소척도에는 '내 형제나 자매가 실패하면 나는 책임감을 느낀다', '나의 의견이 그룹원들의 의견과 매우 다르더라도 논쟁을 피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1점(전혀 동의 안 함)~7점(전적인 동의)의 7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각 소척도는 최소 1점~최대 7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전체는 .69,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경우 .66,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7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0.0버전과 AMOS 20.0버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항의 반응경향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를 산출하였고, 연구모

형에 투입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개별화 및 공생의 영향이 문화적 자기관을 통해 부부 친밀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문화적 자기관의 매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개별적으로 투입한 두 개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시 잠재변수의 측정지표 증가는 모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항꾸러미 제작(item parceling)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절대값이 가장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순차적으로 묶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김수영, 2017)으로 유사한 수준의 부하량을 가진 3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별화, 공생,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대해 문항꾸러미 작업을 하여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부부친밀은 각 하위 척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여, 해석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ation)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개별화 및 공생이 매개변인인 독립적 자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통해 부부 친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 -.42 ~ 1.07, 첨도 -.75 ~ 1.08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는 정상분포의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개별화는 공생,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생은 독립적 자기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유의한 부적 상관, 부부친밀감과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기관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별화, 공생,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잠재변인과 해당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시 χ^2값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234.779(p<.001), df=80, TLI=.904 CFI=.927, $RMSEA$=.072 으로 나

표 1. 변인의 기술통계(N=37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개별화 전체	4.03	0.55	-0.70	0.08
개별화1	3.93	0.69	-0.51	-0.32
개별화2	4.07	0.55	-0.81	0.41
개별화3	3.95	0.62	-0.69	0.12
공생 전체	3.01	0.65	0.22	-0.26
공생1	2.66	0.79	0.31	-0.23
공생2	3.17	0.79	0.07	-0.57
공생3	3.19	0.71	0.20	-0.38
독립적 자기관 전체	4.72	0.65	-0.14	-0.08
독립자기1	5.02	0.78	-0.12	-0.32
독립자기2	4.66	0.81	-0.21	0.10
독립자기3	4.48	0.83	-0.03	-0.33
상호의존적 자기관 전체	4.54	0.55	-0.30	1.00
상호자기1	4.44	0.64	-0.30	1.53
상호자기2	4.37	0.78	-0.36	0.57
상호자기3	4.81	0.67	-0.33	0.52
부부친밀감 전체	3.91	0.50	-0.54	0.76
인지친밀	3.90	0.54	-0.71	1.81
정서친밀	4.17	0.57	-1.01	1.34
성적친밀	3.64	0.78	-0.58	0.34

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적 친밀의 요인부하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부하량은 .545 ~ .887, 유의성(t값)은 7.898 ~ 20.166, AVE는 .587~.871, C.R.은 .810~.953으로 나타났다. 비록 성적 친밀의 요인부하량이 .5 이하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부하량 및 유의성, AVE 및 C.R.을 고려했을 때 측정모형이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친밀을 제거하지 않고 연구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모형에 투입된 잠재변인이 서로 변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잠재변수의 상관계수와 $\sqrt{AVE}$를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sqrt{AVE}$ 값이 상관계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별타

표 2. 모형에 투입된 변인의 상관분석

변인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5	5-1	5-2	5-3
1. 개별화	1.00																			
1-1. 개별화1	.92**	1.00																		
1-2. 개별화2	.90**	.75**	1.00																	
1-3. 개별화3	.87**	.70**	.71**	1.00																
2.공생	.39**	.42**	.34**	.29**	1.00															
2-1. 공생1	.17**	.21**	.16**	.11*	.86**	1.00														
2-2. 공생2	.37**	.42**	.31**	.29**	.89**	.65**	1.00													
2-3. 공생3	.46**	.47**	.43**	.37**	.83**	.53**	.63**	1.00												
3. 독립적 자기관	.31**	.32**	.24**	.25**	.14**	.08	.21**	.08	1.00											
3-1. 독립자기1	.25**	.26**	.21**	.20**	.12*	.06	.18**	.05	.80**	1.00										
3-2. 독립자기2	.14**	.15**	.12*	.11*	.05	.03	.11*	-.01	.82**	.53**	1.00									
3-3. 독립자기3	.35**	.38**	.26**	.29**	.18**	.10	.22**	.14**	.80**	.44**	.47**	1.00								
4. 상호의존적 자기관	.15**	.06	.16**	.21**	-.18**	-.23**	-.17**	-.04	.06	.02	.04	.09	1.00							
4-1. 상호자기1	.03	-.03	.04	.08	-.05	-.09	-.07	.04	-.06	-.09	-.03	-.02	.75**	1.00						
4-2. 상호자기2	.21**	.13*	.22**	.24**	-.15**	-.23**	-.13**	-.02	.17**	.11*	.09	.20**	.83**	.40**	1.00					
4-3. 상호자기3	.11*	.03	.11*	.16**	-.22**	-.21**	-.21**	-.13*	.01	.00	.02	.00	.80**	.42**	.49**	1.00				
5. 부부친밀감	.44**	.39**	.40**	.40**	.09	-.06	.10	.20**	.31**	.27**	.21**	.26**	.16**	.01	.21**	.14**	1.00			
5-1. 인지친밀	.35**	.35**	.32**	.28**	.13**	.04	.12*	.20**	.30**	.27**	.20**	.25**	.05	-.06	.13*	.04	.78**	1.00		
5-2. 정서친밀	.47**	.42**	.43**	.45**	.10	-.06	.09	.23**	.24**	.22**	.17**	.21**	.12*	.00	.17**	.10	.83**	.65**	1.00	
5-3. 성적친밀	.26**	.21**	.24**	.26**	.01	-.10	.04	.08	.21**	.19**	.14**	.17**	.19**	.07	.19**	.17**	.80**	.34**	.42**	1.00

* $p<.05$, ** $p<.01$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수	*B*	*β*	*S.E*	*t*	*AVE*	*C.R.*
개별화	→ 개별화1	1.000	.874			0.871	0.953
	→ 개별화2	.790	.858	.039	20.166***		
	→ 개별화3	.847	.815	.045	18.844***		
공생	→ 공생1	1.000	.725			0.731	0.890
	→ 공생2	1.208	.878	.088	13.802***		
	→ 공생3	.896	.727	.070	12.752***		
독립적 자기관	→ 독립자기1	1.000	.718			0.587	0.810
	→ 독립자기2	1.013	.699	.106	9.565***		
	→ 독립자기3	.988	.661	.105	9.420***		
상호의존적 자기관	→ 상호자기1	1.000	.545			0.623	0.830
	→ 상호자기2	1.616	.720	.205	7.898***		
	→ 상호자기3	1.358	.712	.172	7.907***		
부부친밀감	→ 인지친밀	1.000	.731			0.696	0.866
	→ 정서친밀	1.294	.887	.108	11.927***		
	→ 성적친밀	.945	.475	.113	8.366***		

***p<.001

표 4.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와 $\sqrt{AVE}$ 의 비교

변인	1.	2	3	4	5	$\sqrt{AVE}$
1. 개별화	1					0.933
2. 공생	.47***	1				0.855
3. 독립적자기관	.367***	.214**	1			0.766
4. 상호의존적 자기관	.197**	-.249***	.095	1		0.789
5. 부부친밀감	.557***	.138*	.365***	.177*	1	0.834

*p<.05, **p<.01, ***p<.001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화, 공생, 독립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구조모형검증

구조모형 검증

앞서 실시한 측정모형검증에서 모형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석의 다음 단계인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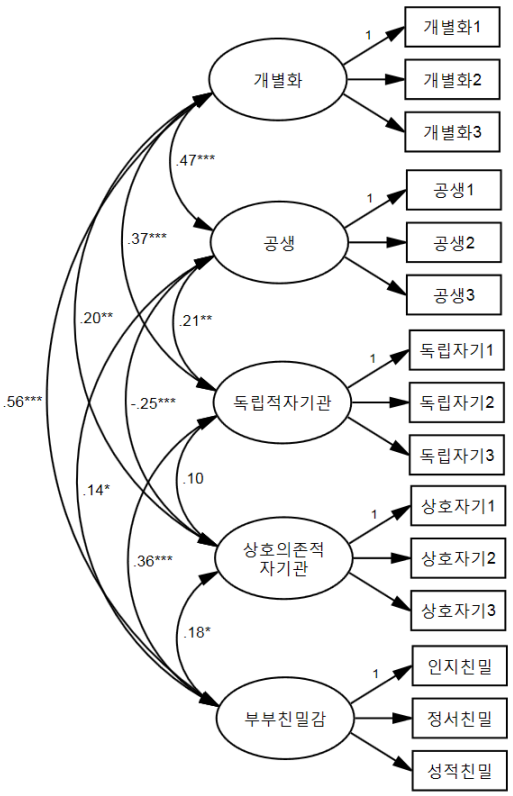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검증 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p<.05$, $^{**}p<.01$, $^{***}p<.001$

개별화 및 공생을 예측변인으로, 부부친밀감을 준거변인으로, 독립적 자기관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hi^2=154.824(p<.001)$, $df=48$, $TLI=.920$, $CFI=.942$, $RMSEA=.078$).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를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화는 독립적 자기관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45$, $p<.001$),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5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화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독립적 자기관과 부부친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공생은 독립적 자기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beta=.048$, $p>.05$),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168$,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공생은 부부친밀감과 정적 상관이 있으나 본 연구 모형에서 개별화와 독립적 자기관을 통제했을 때 공생이 증가할수록 부부친밀감이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별화 정도와 독립적 자기관이 동등한 두 사람 간에 공생의 정도가 증가할 경우 부부친밀감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인 공생의 측정지표는 역채점한 값을 투입하였으므로, 공생의 점수 증가는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리불안, 공생관계로 남아있고 싶은 욕구가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화 정도와 독립적 자기관이 모두 동일할 경우, 공생에 대한 욕구 감소는 오히려 부부 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소시켜 부부친밀감이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독립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0.193$,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적 자기관이 증가할수록 부부친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검증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화 및 공생, 독립적 자기관,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beta=.631$, $p<.01$). 이때, 개별화의 직접효과($\beta=.565$, $p<.01$)와 간접효과($\beta=.066$, $p<.01$)는 모두 유의하였고, 간접효과에 비해 직접효과

표 5.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B*	*β*	*S.E*	*t*
개별화	→ 독립적자기관	0.319	0.345	0.07	4.567***
	→ 부부친밀감	0.368	0.565	0.05	7.349***
공생	→ 독립적자기관	0.052	0.048	0.08	0.653
	→ 부부친밀감	-0.128	-0.168	0.049	-2.603**
독립적 자기관	→ 부부친밀감	0.136	0.193	0.046	2.93**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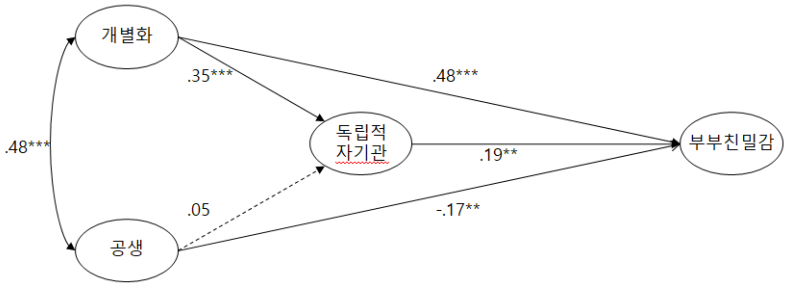

그림 4. 구조모형 검증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p<.01, ***p<.001

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별화가 독립적 자기관을 경유하여 미치는 영향보다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공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β=-.159, p<.05). 이때, 공생의 직접효과(β=-.1688, p<.01)은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009,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생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 방법으로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N=370)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한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별화가 독립적 자기관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β=.066, CI=.023～.137, p<.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하여, 개별화와 부부친밀감 간에 독립적 자기관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화가 클수록 독립적 자기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부친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화의 증가는 독립적 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부

표 6.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개별화	독립적 자기관 →	부부친밀감	066**	.028	.023	.137
공생	독립적 자기관 →	부부친밀감	.009	.018	-.022	.048

** p<.01

부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생은 독립적 자기관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β=.009, *CI*= -.022～.048, p>.01)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생과 부부친밀감 간에 독립적 자기관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개별화, 공생, 상호의존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구조모형검증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은 개별화 및 공생을 예측변인으로, 부부친밀감을 준거변인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153.568(p<.001), *df*=48, *TLI*= .919, *CFI*=.941, *RMSEA*=.077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를 표 7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화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유의한 정적 영향(β=.404, p<.001),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β=.62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화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부부친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공생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유의한 부적 영향(β=-.44, p<.001),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β=-.15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생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부부친밀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11, p>.05).

표 7.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B*	β	*S.E*	*t*
개별화	→ 상호의존적 자기관	0.238	0.404	0.049	4.855***
	→ 부부친밀감	0.399	0.621	0.054	7.353***
공생	→ 상호의존적 자기관	-0.297	-0.44	0.06	-4.986***
	→ 부부친밀감	-0.114	-0.155	0.054	-2.105*
상호의존적 자기관	→ 부부친밀감	0.012	0.011	0.074	0.162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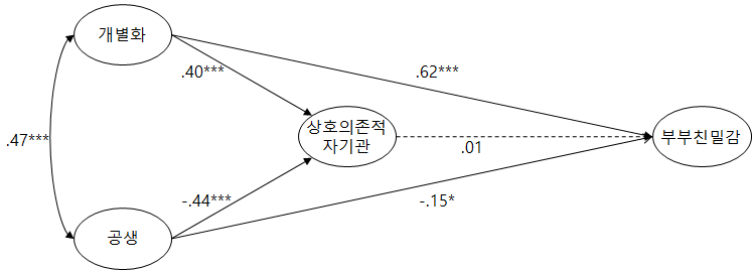

그림 5. 구조모형 검증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p<.05$, $^{***}p<.001$

구조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검증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화 및 공생, 상호의존적 자기관,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β=.626, p<.01). 이때, 개별화의 직접효과(β=.621, p<.01)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004,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별화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공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β=-.160, p<.05). 이때, 공생의 직접효과(β=-.155, p<.05)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005,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생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 방법으로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N=370)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한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별화가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4, CI=-.066～.064, p>.05). 이는 개별화와 부부친밀감 간에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공생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5, CI=-.071～.066, p>.05). 이는 공생과

표 8.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개별화	상호의존적 자기관 →	부부친밀감	004	.033	-.066	.064
공생	상호의존적 자기관 →	부부친밀감	-.005	.036	-.071	.066

부부친밀감 간에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와 문화적 자기관, 부부친밀감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울러,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 문화적 자기관과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는 공생,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부부친밀감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공생은 독립적 자기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부부친밀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 유형 중 독립적 자기관만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적응이 용이하고 결혼만족 증가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현경자, 2004)를 뒷받침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와 공생 중 개별화만이 독립적 자기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생은 독립적 자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경우, 개별화와 공생 모두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위인 개별화와 공생, 또 문화적 자기관의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부부친밀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을 때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변인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적응적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 위주로 구성되었고 신혼부부의 특성상 대체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의존적 자기관보다 독립적 자기관이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수 있겠다. Snibbe과 Markus(2005)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만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들이 속한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며, 영향을 받는 것보다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학력자들의 특징은 문화적 자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중·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적 자기관에 관한 연구(한민 등, 2009)에서도 독립적 자기관이 다른 자기관에 비해 각 국의 대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와

공생 중 개별화는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공생은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화가 잘될수록 부부간의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만족도는 자율성이 발달된 유형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나타낸 유은희(1991)의 연구, 상호독립적이고 개별화가 잘 될수록 결혼적응도가 높다는 박경순(1998)의 연구, 분리-개별화 중 개별화가 잘 된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는 윤희정(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 결혼 생활에서 개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부부 사이의 애정표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을 덜 경험하며(박경순, 2013) 개별화의 성숙정도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자율성과 자기중심성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기존의 이론(Bowen, 1978)과 분리-개별화와 부부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김남진, 김영희, 2010; 유은희, 박성연 1989)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이를 통해 높은 개별화 수준은 개인이 사회적 적응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공생의 경우, 공생과 부부친밀감 간의 단순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개별화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공생은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높은 공생의 점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공생욕구가 낮음을 뜻하는데, 공생관계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이 배우자와의 공생욕구 또한 낮추어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경험할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hite (1997)는 부부사이의 공생태도는 애착, 경계선의 융합,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대한 감각의 상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에서 관계적인 자아로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Bader과 Pearson(1988)은 부부관계의 첫 번째 단계를 Mahler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의 두 번째 단계인 공생단계와 비슷하다고 규정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삶과 성격이 합쳐지고 강한 유대감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공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생의 부적 영향은 공생과 부부친밀감의 이론적 관계를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분리-개별화는 남녀 모두의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임이 틀림없으며 Colarusso(2000)가 주장하는 분리-개별화가 평생 과정이라는 이론에 근거한다면,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개인이더라도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한 탐색과 고찰을 통해 보다 건강한 개별화를 지향함으로써 부부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 및 공생과 문화적 자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별화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모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고 공생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에는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화가 성공적일수록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둘 다 증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누구인지를 정립하면서 개별적 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이러한 개별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되는 친밀감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Erickson, 1950). 따라서 개별화에 성공한 개인은 자율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그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기술이 발달된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개인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공생의 경우, 공생점수가 높다는 것은 부모와 공생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다는 뜻으로 공생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공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강조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과 같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분리불안이 낮고 부모와 공생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은 것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과 상충된다. 따라서 공생욕구가 낮은 개인에게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 또한 개발되기가 어려울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자기관의 독립적 자기관만이 부부친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연구(Deci & Ryan, 1985; Lippes, 1998; Markus & Kitayama, 1991)결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자기관 중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감소시켰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연구(현경자, 2004)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증가하면 부부친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립적 자기관의 자율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명확성 등이 부부친밀감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결혼만족에 적응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던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Carter와 McGoldrick(1989)의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힘들고 복잡한 전환 중의 하나인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자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개별화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인 제2단계 신혼부부 시기 개념을 반영하여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경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기혼남성은 가사, 양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기혼남성이 자녀들 및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이들의 관계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정해보면 자녀가 없고 양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본 연구 대상의 특징이 반영되어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

다섯째,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개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도 증가하고 부부친밀감도 증가하는데 이는 개별화가 잘 되었을수록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골고루 발달하고 부부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화적 자기관의 연구들(김동직, 1999; Ting-Toomeyet al., 2001)에서는 개인이 두 가지 자기관을 고루 발달시키게 되면 좀 더 적응에 유리하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개별화에 성공하는 것이 두 가지 자기관을 고루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예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 중 개

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만 독립적 자기관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독립적 자기관의 부분 매개효과는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때, 개별화가 독립적 자기관을 경유하여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개별화 자체가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화가 성공적인 개인은 독립적 자기관을 발달시키게 되며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인 자율성, 의사소통 명확성, 자기존중감이 결혼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며 개인의 안녕감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배우자와의 인지, 정서, 성적 친밀감 증가에 기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단, 세 번째 연구문제인 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화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부부친밀감이 증가했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계성을 지향하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자율성을 지향하는 여성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홍숙선, 조성호, 2003)를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이며 Kwan 등(1997)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현경자(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결혼만족도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 대신 부부친밀감을 통해 살펴보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친밀감은 인지, 정서, 성적 친밀감을 종합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부부 쌍방 간의 정서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개념(남순현, 한성열, 2003)이고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에 대해 또한 결혼하고 있는 상태, 결혼적응 등 결혼생활의 총체적인 측면에 대해 묻고 있는 개념이다. 개인이 느끼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개념인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결혼만족도와 다르게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사고를 중요시하고 자기표현, 독특성을 중요시하는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이 부부친밀감에는 더욱 영향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 중 공생의 경우는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독립적 자기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공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독립적 자기관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공생의 욕구가 낮으면 부부친밀감이 감소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관도 감소한다. 공생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관에는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매개하지 않았다. 높은 공생 점수는 부모와 공생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고 분리불안,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낮음을 의미하는데, 개별화 정도와 독립적 자기관이 모두 동일한 경우, 공생욕구가 낮으면 배우자와 공생관계로 남고 싶은 욕구 또한 낮아지어 부부친밀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공생욕구의 감소는 타인과의 관계 지향을 추구하는 상호

의존적 자기관의 특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신혼기에 있는 부부를 특정으로 하여,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서구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자란 우리나라 신혼기 부부의 적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신혼기 부부의 분리-개별화가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아 원가족에 관련된 변인이 부부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리-개별화와 결혼만족도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소 있었지만, 분리-개별화의 성공정도가 부부간 정서적, 인지적, 성적 친밀감인 부부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를 하위변인인 개별화와 공생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신혼기에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좀 더 세분화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리-개별화를 하나의 변인으로 보고 분리-개별화의 성공 또는 실패가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나아가 분리-개별화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속해 있던 두 가지 하위변인이 각기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어 분리-개별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 신혼기 부부관계나, 부부친밀감에 대한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생의 영향보다는 개별화의 영향이 뚜렷이 발견되었고, 개별화를 통해 독립적 자기관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개별화가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을 증가시켰던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의 특징에서 나온 결과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를 특정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연구대상의 연령이 20, 30대가 95.1%를 이룰 정도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서구문화에 좀 더 노출된 대상들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서구화된 신혼기 부부들에게는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개별화를 통한 독립적 자기관을 양성하는 것이 신혼기 부부의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혼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에는 공생관계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화의 중요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기성세대의 부부와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원가족의 영향이 부부관계나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 부부구성원의 정서 상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애착 등과의 관련성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가족의 영향 못지않게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인 문화적 자기관이 분리-개별화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신혼기 부부들이 갖는 문화적 자기관이 분리-개별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그 자기관이 부부친밀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본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여겨진다.

특히 문화적 자기관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쪽으로 발달하고 관계 중심적 인간관이 우세하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적응하는데 용이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결과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적 자기관이 부부친밀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어 서구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함께 현대 한국인들의 자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기존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보다 다양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해가며 좀 더 다양한 가족문화와 양육방식에서 자라온 개인들이 부부라는 관계를 맺게 되면서 현재 신혼기에 있는 한국인들의 부부친밀감에 어떠한 자기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봄으로써 독립적 자기관이 상호의존적 자기관보다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설명한다는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문화적 자기관의 연구 결과들과 상반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들도 독립적 자기관을 가지는 것이 친밀한 대인관계나 부부관계 안에서 친밀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내담자들의 적응과 문제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안에서의 조화로움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표현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자기표현, 독특성을 중요시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독립적 자기관 특성의 개발을 독려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을 높이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친밀감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결혼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의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하였거나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의 보완을 위해서 실험 연구나 질적 연구 또는 다른 대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대한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인 공생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기에 공생에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공생과 관련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적 자기관 즉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다문화 비교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미국 같은 다민족/다문화 국가에서 소수민족들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자기관의 척도를 한 민족, 한 문화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때 본 척도가 대상자들을 잘 반영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 응답자수의 88.6%의 비율을 차지하여 고학력자 특성이 문화적 자기관 측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기표현이 독려되고 개인 내적의 능력을 발휘하고 직접적인 의사표현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대학문화를 접한 응답자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 자기관을 측정할 때 한쪽으로 편향되어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을 지니며,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자기관 형성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김남진, 김영희 (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97-225.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 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 공적 자의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영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용희 (2010). 기혼 여성의 분리-개별화, 자율성 및 친밀감이 행복감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515-528.

김유리 (2016). 분리-개별화와 자기위로능력 간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경 (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혜 (2015). 분리-개별화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노승훈, 이기학 (2020). 주체성-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315-338.

박경순 (1998). 결혼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순 (2013). 결혼갈등,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21(4), 293-302.

박규상, 조성호 (2009).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7(1), 78-93.

박남숙, 연문희 (2002).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어유경, 박수현 (2018). 정서억제가 친밀한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성 개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121-141.

오경희 (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01-220.

유은희 (1991). 성인자녀-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활변화의 적응. 여성연구, 33, 111-143.

유은희,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학가정학회지, 27(2), 149-162.

윤희정 (2004). 기혼여성의 가족분화 및 분리개별화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숙 (1998).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67-187.

이남옥, 최승미, 조현, 권정혜, 오현주, 정정숙 (2011). 부부상담연구소를 방문한 내담자 특성 및 조기 종결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43-575.

이명옥, 하정희 (2006). 기혼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477-496.

이미숙 (1997).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221-235.

임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8).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심 지각과 신혼기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43-154.

장근영, 윤진 (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157-175.

장성숙 (2006). 한국문화에서의 부부상담: 현실역동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17-131.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윤희 (2012).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긍호 (1996).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229-283.

조아현 (2022). 기혼남녀의 원가족건강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22). 2021 혼인이혼통계. http://www.kostat.go.kr.

하오령, 권정혜 (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과 역할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75-696.

한 민, 이누미야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한정연 (2008). 대학생의 문화적 자기관 유형과 자기통제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홍숙선, 조성호 (2003).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citelli, L. K., Rogers, S., & Knee, C. R. (1999). The role of identity in the link between relationship think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5), 591-618.

Bader, E., & Pearson, P. (1988). *In quest of the mythical mate: A development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in couples therapy*. Florence, KY: Psychology Press.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1), 297-332.

Baumeister, R. F. (2010). The self. In R. F. Baumeister & E. J. Finkel (Eds.), *Advanced social psychology: The state of the science* (pp. 139 - 17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erger, P., & Kellner, H. (1994).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An exercise in the microsociology of knowledge. *The Psychosocial Interior of The Family,* 19-36.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 Aronson.

Campbell, J.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Campbell, J., Trapnell, P., & Heine, S.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Carter, B., & McGoldrick, M. (1989). The changing family life-cycle: A framework to family therapy (2nd ed.). Boston, MA: Ally & Bacon.

Colarusso, C. A. (2000). Separation-Individuation phenomena in adulthood: General Concepts and the Fifth Individu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467-1489.

Cross, S. E. (1995). Self-construals, coping, and stress in cross-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6), 673-697.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Damon, W., & Hart, D. (1988). Self-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ci, E., & Ryan, R.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DicKs, H. (1967). Marital tensions; clinical studies towards a psychological theory of intera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Duvall,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Fiske, A., Kitayama, S., Marjus, H., & Nisbett, R.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Boston, MA:McGraw Hill.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 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37-745.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aws, W. A., & Mallinckrodt, B. (1998).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djustment of recently married coupl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293-306.

Helgeson, V.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Heller, P. E., & Wood, B. (1998). The process of intimacy: Similarity, understanding and gender.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3), 273-288.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Hyun, K. J. (2000). Is an independent self a requisite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sian Americans?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3-4), 179-200.

Kwan, V., Bond, M., & Singelis, T. (1997). Pancultru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38-1051.

Levine,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9.

Linville, P.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63-676.

Lippes, T. (1998). Mutuality in marriage: The self-esteem connection. a self-in relation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Mahler, M. S. (1967).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5*(4), 740-763.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Markus, H.,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ller, J. B. (2012).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2nd ed.). Boston, MA: Beacon Press.

Misra, G., & Giri, R. (1995). Is Indian self predominantly interdependent.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13(1)*, 16-29.

Moss, B., & Schwebel, A. (1993). Defining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2*(1), 31-37.

Rosenberg, M. (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 R. H.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593 – 624. New York: Basic Books.

Scharff, D. E., & Scharff, J. S. (1991).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Ting-Toomey, S., Oetzel, J. G., & Yee-Jung, K. (2001). Self-construal type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Communication Reports, 14*(2), 87-104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 – 520.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and self clos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10*, 185-192.

White, T. (1997). Symbiosis and attachment hunger,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7*(4), 300-304.

원 고 접 수 일 : 2022. 12.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3. 02
게 재 결 정 일 : 2023. 03. 15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3, Vol. 35, No. 2, 693-725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trual on the Separation-Individuation and Marital Intimacy of Newlywed Couples

Dan-Bi Ryu
Hanyang University / Student

Jung-Hee Ha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strual on the separation-individuation and marital intimacy of newlywed couples. Data were obtained from 370 newlyweds. The statistical analyse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dividuation and symbiosis, the subfactors of separation-individuation, bot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marital intimacy. Second, individu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both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whereas symbiosis significantly influenced only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Third, only independent self-construal influenced marital intimacy significantly. Fourth, individuation influenced marital intimac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Symbiosis only had a direct influence on marital intimacy, and no mediating effect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ymbiosis and marital intimacy.

Key words : newlywed couple, separation-individuation, self-construal, marital intimacy